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small>Korea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Information</small>	<h1>보도자료</h1>	http://www.kisti.re.kr
	배포 즉시 보도 가능합니다.	
대전(본원): 대외협력실 김양희 042 - 869 - 0968 / 최영진 0947 문의: 정보기반실 신진섭(042-869-1754, 010-8802-7503)		
배포번호 : 2017-15 배포일자 : 2017.06.14.(수)	매수 : 보도자료 3매 (참고자료 포함)	배포처 : 대외협력실

KISTI, 'DOI 체계 국제 협력 세미나' 개최

- 국제표준식별체계, DOI 현황과 발전방향 논한다 -

□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원장 한선화, 이하 KISTI)은 15일(목) 오후 1시부터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DOI* 체계 국제 협력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DOI(Digital Object Identifier) : 디지털 객체 식별자로 객체를 유일하게 식별하는데 사용되는 국제 표준 문자열이다. 문헌을 비롯한 연극·영화 등 모든 유무형의 콘텐츠 뿐만 아니라 콘텐츠 안의 표나 이미지 같은 세부 콘텐츠에 대해서도 부여할 수 있다. 심지어 동식물과 같은 어떠한 유형의 객체에 대해서도 부여할 수 있는 고유의 식별체계를 갖고 있다. 콘텐츠의 인터넷 주소나 위치가 바뀌어도 쉽게 찾을 수 있으며, 기존 식별체계와 충돌하지 않고 유연하게 수용할 수 있다. 인터넷 상의 위치 정보인 URL의 단점으로 꼽히는 데드링크(dead link)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서, 2012년 ISO의 새로운 국제표준규격(ISO 26324)으로 채택되었다.

□ 이번 세미나는 국내외 DOI 등록관리기관들의 활동 현황과 DOI 관련 기술동향에 대한 이해를 돕고, DOI 적용 확대로 국내 학술정보 및 연구 데이터의 지식재산권을 강화 하는데 있다.

○ 세미나에서는 국제 DOI 재단(IDF*) 매니저 조나단 클라크(Jonathan Clark)의 'IDF 소개' 강연을 시작으로, △DONA(Digital Object

Numbering Authority) △DOI를 통한 연구데이터 인용 △Crossref DOI 서비스 △중국의 DOI 서비스 주제로 해외인사들의 발표가 이어진다.

- 국내에서는 '한국 DOI 센터'인 KISTI 소속 연구원들이 △국내 학술단체의 DOI 현황과 서비스 요구 사항 △한국 DOI 센터 소개 △글로벌 대용량 실험데이터 허브센터(GSDC) 서비스에 대해 강연하며 세미나를 마무리 한다.
- '한국 DOI 센터 소개'에서는 KISTI가 국내 학술단체, 데이터센터 등과 동반자로서 지속성장하기 위한 발표가 있을 예정이다.

□ 한편, 이번 세미나에 앞서 13일부터 14일 양일간 IDF 관계자들과 아시아 DOI 등록관리 국가인 한국, 중국, 일본 3개국 DOI 등록관리 기관들은 'DOI 전략회의'를 개최했다. 전략회의에서는 연구결과물에 대한 각국의 DOI 등록관리 경험을 공유하며, 등록된 서지 데이터의 공유를 협력하기로 하였다.

□ 2016년 1월 KISTI는 IDF로부터 세계 열 번째, 아시아에서는 중국, 일본에 이어 세 번째로 DOI 등록관리기관*으로 승인 받았다.

* DOI 등록관리기관(DOI Registration Agencies, DOI RA): IDF는 DOI를 직접 부여하거나 관리하지 않고 DOI RA를 지정해(지정 기준: 평가 및 이사회 의 만장일치) DOI를 관리하게 한다. DOI RA는 소유한 콘텐츠에 대해 DOI를 기탁해줄 등록자와 기탁된 DOI를 유지·관리하고, 세계 각국의 지정된 RA와 협력·연계하여 보유한 DOI를 유통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 KISTI는 학술정보 뿐만 아니라, 소재물성, 참조표준 등의 과학데이터에도 DOI를 부여하여 항구적 접근과 인용을 위한 기반을 담당하게 되었다.

- IDF 조나단 클라크(Jonathan Clark) 매니저는 “각국의 과학기술정보 유통을 담당하는 KISTI와 같은 기관들의 협력은 표준식별자들을 통해 연구데이터를 재사용하고, 국경을 넘어 연구자들 간에 공동 연구를 가능하게 하는 오픈사이언스를 가속화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 KISTI 김재수 첨단정보융합본부장은 “DOI는 더 이상 외국의 식별 체계가 아니며, 우리나라 연구결과의 국제적인 영향력을 제고하는데 필수적인 역할을 담당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끝)